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성격 5 요인특성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

이규리¹, 박종석^{2*}

¹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An Effect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Students on Their Academic Satisfaction: Mediated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Gyu-Ree Yi¹, Jong Seok Park^{2*}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m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Daeg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성격 5 요인특성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성격 특성 유형이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구에 소재한 3년제 대학교에서 대학생 300명에게 설문 조사하여 260명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기초 분석과 상관분석,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효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성격 5 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증은 학과만족도에 유의하였으나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매개 효과 검증에서 신경증을 제외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외향성은 완전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학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진로준비행동을 증진 시켜줄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mong clinical laboratory science students affect their levels of academic satisfaction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in the context of these personality traits influencing academic satisfaction. A total of 300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3-year college in Daegu were surveyed, and 260 were analyzed. SPSS 22.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while Baron and Kenny (1986)'s three step method was carried out for basic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llected data.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shows that extroversion, openness,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ha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with academic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while neuroticis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with academic satisfaction and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career preparation. Secondly, the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found that extroversion, openness,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but not neuroticism,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extroversion especially was confirmed to hav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us, methods are needed to improve academic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in college.

Keywords :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cademic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Neuroticism, Extroversion, Openness,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Corresponding Author : Jong Seok Park(Daegu Health College)

email: jsp@cbtp.or.kr

Received June 18, 2020

Accepted August 7, 2020

Revised July 17,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시기의 부모와 학교로부터 독립하여 본인의 특성과 바램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의 또는 타의에 의해 선택된 학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진로에 대한 증압감과 스스로 선택한 진로와 직업은 본인의 능력 발휘의 기회, 사회 경제적 지위, 인간관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치관과 태도, 가족관계, 거주지 등과 같이 일상생활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준다[1]. 국내 대학 내 학생 생활연구소의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입생들은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75.24%), 목표상실과 가치관 혼란(43.94%), 자율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부적응(30.2%) 등의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적성 간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학과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며, 학과 교육과정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3].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생이 입학한 후 학과에 대한 부적응과 불만족을 겪고 있으며, 본인의 진로에 관하여 심각한 갈등과 고민, 불안감을 경험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4].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생들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효율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 혹은 가족들의 기대로 인하여 본인들의 희망보다는 성적과 가족들의 기대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하는 실정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대학신문 기획평가팀(2014년 10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학진학 이유가 “취업에 유리한 조건 획득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5].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 학과 또는 전공에서 배우고 익히는 이론과 실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6]. 대학 교육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 없이 전공을 선택한 경우 대학 생활을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전공에 관한 관심 결여를 유발하게 된다[5]. 이것은 중도탈락률 증가, 졸업 후 직업 선택과 전공 관련 업무에 대한 어려움 등의 이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7].

임상병리학과와 특성은 졸업 후 전공 관련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성격에 따라 학과 및 전공만족도가 상이하며, 본인 전공에 부합하는 진로를 향해 매진하는 학생들이 대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8]. 또한, 대학생의 학과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9]. 이것은 학과를 선택한 후 전공 관련된 학습 및 경험에 대한 만족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준비행동을 한다[10]. 대학생에게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에 대한 결정전후가 다르게 나타난다. 진로결정 이전의 경우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며, 진로 결정 이후에는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게 된다[11]. 경제불황으로 심각해진 청년 실업난이 장기화함으로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보건의료 분야로서 다른 학과에 비해 직업 선택의 폭이 넓고 채용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나 자격증 취득이라는 특성이 있다 [12].

임상병리사의 어려운 취업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은 임상병리사를 육성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노력에서부터 그 출발 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12]. 임상병리를 전공한 학생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이면서 현실적인 취업 영역을 개발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취업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2]. 그러므로 입학 후부터 학과적응과 함께 진로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격과 특성을 충분히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임상병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부터 개인의 성격유형을 탐색하여 그 유형별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며 또한, 취업 준비에 관한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효율적인 진로상담과 미래지향적인 직업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구에서 있는 3년제 대학교 임상병리학 전공 1~3학년들을 대상으로 성격 5 요인별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관하여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1. 임상병리학과 대학생의 성격 5 요인별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임상병리학과 대학생의 성격 5 요인별 각각의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임상병리학과 대학생의 성격 5 요인별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준비 행동은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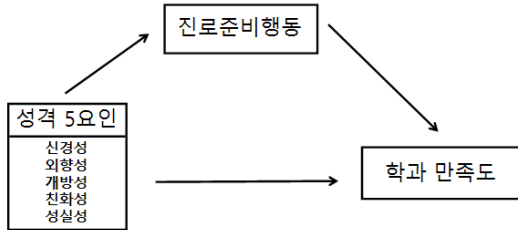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of mediated effect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병리학과 학생의 성격 5 요인별 특성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매개하는 지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소재한 일개 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을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득한 후에 수행하였다. 총 300명의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누락된 항목이 많거나 일괄적인 응답이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260명) 자료만을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하였으며,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2.3.1 BIG 5 성격검사

성격 5 요인특성은 Goldberg(1999)가 제작하고 유태용, 이기범과 Ashton(2004)이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13]. 성격 5 요인의 대표적인 검사로는 NEO-PI-R (Cosh & McCrae, 1992) 과 IPIP (Goldberg, 1999) 있다. NEO-PI-R은 요인에 여섯 가지 하위요인이 있어 검사결과가 구체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의 문항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IPIP는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 10개 문항씩, 총 50문항이다 [14]. Likert 5점 척도 채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신경증. 86, 외향성. 87, 개방성. 75, 친화성. 77, 성실성. 78로 나타났다.

2.3.2 학과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하나는 학과만족도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전공만족도에 대한 설문 문항은 김혜주(2007), 이선영(2009), 장문영(2005), 정희영, 박옥련(2009), 하혜숙(2000)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김혜진(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15]. 전공만족도는 수업 만족, 관계 만족, 사회 인식 만족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업 만족은 9문항, 관계 만족은 4문항, 사회 인식 만족은 6개 문항으로 총 19문항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수업 만족. 87, 관계 만족. 82, 사회 인식 만족. 87이었다.

2.3.3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진로준비 행동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과정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력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16].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 김계현(1997)의 진로준비 행동 측정 도구에 인터넷이 활성화로 대학교에 진로지원센터의 개설이 활발한 경향을 반영한 2문항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임은미, 이명숙(2003)의 진로준비행동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17]. 추가된 문항은 8번과 12번이다. 총 18문항으로 정보 수집 활동 6문항, 도구구비 활동 5문항, 실천 노력할 등 7문항으로 3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정보 수집 활동. 77, 도구구비 활동. 79, 목표달성 활동. 81로 나타났다.

2.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확인하였다. 둘째, 성격 5 요인, 학과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성격 5 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 5 요인과 학과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분석하였으며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성 220명(78.9%), 남성 59명(21.1%)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92명(33%), 2학년 92명(33%), 3학년 95명(34.1%)이었다. 연령의 평균은 21.9세였는데 20세 이상 22세 이하가 210명(7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희망 직업 관련 자격증 유무는 없음이 252명(90.3%)이었고, 있음이 26명(9.3%), 무응답 1명(0.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9)

	Characteristic	N	N(%)
Gender	Female	220	78.9
	Male	59	21.1
Grade	First	92	33.0
	Second	92	33.0
	Third	95	34.1
Age (M=21.9)	20~ 22	210	75.3
	23~ 25	55	19.7
	26~이상	14	5.0
License	No	253	90.7
	Yes	26	9.3

3.2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Table 2와 같다. 먼저 성격 5 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5점 기준으로 친화성이 3.45점으로 가장 높았고, 표준편차는 .4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과만족도 평균은 3.44이었고, 표준편차는 .53이었으며, 하위변인별로는 사회 인식 만족이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계 만족 3.40점, 수업 만족 3.36점 순이었다.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2.94이었으며, 표준편차는 .61이었다. 하위변인별로는 정보 수집 활동 3.34점, 도구구비 활동 2.74점, 목표달성 활동 2.73점 순이었다.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N=279)

Variable		M±SD	Rang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Neuroticism	3.06±. 68	1.40-4.80
	Extroversion	3.12±. 65	1.30-4.90
	Openness	3.14±. 47	1.80-4.70
	Agreeableness	3.45±. 49	1.20-4.80
	Conscientiousness	3.28±. 52	2.10-5.00
Academic-Satisfaction	Class	3.36±. 54	2.11-5.00
	Relationship	3.40±. 67	1.00-5.00
	Social awareness	3.54±. 63	1.83-5.00
	Total	3.44±. 53	2.15-5.00
Career Preparation	Information gathering	3.34±. 67	1.17-5.00
	Tool fulfill	2.74±. 76	1.00-4.80
	Achievement	2.73±. 71	1.00-4.86
	Total	2.94±. 61	1.20-4.71

3.3 상관관계 검증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신경증은 외향성($r=-.164, p<.01$), 친화성($r=-.173, p<.01$), 성실성($r=-.353, p<.001$), 학과만족도($r=-.167, p<.01$)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고, 외향성은 개방성($r=.380, p<.001$), 친화성($r=.564, p<.001$), 성실성($r=.243, p<.001$), 학과만족도($r=.124, p<.05$) 진로준비행동($r=.204, p<.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N=279)

Variable	1	2	3	4	5	6	7
1. Neuroticism	1						
2. Extroversion	-.164**	1					
3. Openness	-.070	.380***	1				
4. Agreeableness	-.173**	.564***	.346***	1			
5. Conscientiousness	-.353***	.243***	.409***	.410***	1		
6. Academic Satisfaction	-.167**	.124*	.219***	.188**	.279***	1	
7. Career Preparation	-.065	.204**	.224**	.212***	.208***	.364***	1

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개방성은 친화성($r=.346, p<.001$), 성실성($r=.409, p<.001$), 학과만족도($r=.219, p<.001$), 진로준비행동($r=.224, p<.01$)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친화성은 성실성($r=.410, p<.001$), 학과만족도($r=.188, p<.01$), 진로준비행동($r=.212,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고, 성실성은 학과만족도($r=.279, p<.001$), 진로준비행동($r=.208,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과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r=.364,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0.7 이상만 되더라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만, 이에 다중공선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3.4 성격 5 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이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Factors Influencing Burnout

(N=279)

Independent	Subordination	B(SE)	β	t	R ²	F
Neuroticism	Career Preparation	-.059(.054)	-.065	-1.091	.004	1.191
	Academic Satisfaction	-.130(.046)	-.167	-2.823**	.028	7.972**
Extroversion	Career Preparation	.192(.056)	.204	3.461**	.041	11.980**
	Academic Satisfaction	.101(.048)	.124	2.076 [^]	.015	4.310 [^]
Openness	Career Preparation	.291(.076)	.224	3.827***	.050	14.648***
	Academic Satisfaction	.245(.065)	.219	3.742***	.048	14.006***
Agreeableness	Career Preparation	.262(.072)	.212	3.616***	.045	13.074***
	Academic Satisfaction	.199(.063)	.188	3.180**	.035	10.110**
Conscientiousness	Career Preparation	.245(.069)	.208	3.535***	.043	12.497***
	Academic Satisfaction	.282(.058)	.279	4.829***	.078	23.321***
Career Preparation	Academic Satisfaction	.313(.048)	.364	6.51***	.133	42.316***

[^]p<.05, **p<.01, ***p<.001

Table 5. Mediating Effect Regression Analysis

(N=279)

		Variable	B	β	R ²	F
Neuroticism	step 1	Neuroticism → Career Preparation	-.059	-.065	.004	1.191
	step 2	Neuroticism → Academic Satisfaction	-.130	-.167**	.028	7.972**
	step 3	Neuroticism → Academic Satisfaction	-.112	-.144 [^]	.153	24.964***
		Career Preparation → Academic Satisfaction	.305	.355***		
Extroversion	step 1	Extroversion → Career Preparation	.192	.204**	.041	11.980**
	step 2	Extroversion → Academic Satisfaction	.101	.124 [^]	.015	4.310 [^]
	step 3	Extroversion → Academic Satisfaction	.042	.052	.135	21.555***
		Career Preparation → Academic Satisfaction	.304	.353***		
Openness	step 1	Openness → Career Preparation	.291	.224***	.050	14.648***
	step 2	Openness → Academic Satisfaction	.245	.219***	.048	14.006***
	step 3	Openness → Academic Satisfaction	.162	.145 [^]	.153	24.835***
		Career Preparation → Academic Satisfaction	.285	.332***		
Agreeableness	step 1	Agreeableness → Career Preparation	.262	.212***	.045	13.074***
	step 2	Agreeableness → Academic Satisfaction	.199	.188**	.035	10.110**
	step 3	Agreeableness → Academic Satisfaction	.123	.116 [^]	.145	23.456***
		Career Preparation → Academic Satisfaction	.292	.339***		
Conscientiousness	step 1	Conscientiousness → Career Preparation	.245	.208***	.043	12.497***
	step 2	Conscientiousness → Academic Satisfaction	.282	.279***	.078	23.321***
	step 3	Conscientiousness → Academic Satisfaction	.215	.212***	.176	29.395***
		Career Preparation → Academic Satisfaction	.275	.320***		

[^]p<.05, **p<.01, ***p<.001

성격 5 요인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격 5 요인 중 신경증은 학과만족도에는 유의미하였으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진로준비행동과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으로, 이는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낮지만,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과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5 성격 5 요인과 학과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

성격 5 요인의 하위요인과 학과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매개효과를 갖기 위하여서는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이 동시에 종속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또한,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줄어들어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완전매개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모두 유의미한 수준일 경우에는 부분 매개로 해석한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를 적용하여 먼저 성격 5 요인 중 신경증과 학과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매개 효과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외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와 2단계는 검증이 되었다. 3 단계에서는 숫자는 줄어들었으나($\beta=.052$, $p<.001$),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진로준비행동에서는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beta=.353$, $p<.001$) 것으로 나타나, Baron과 Kenny(1986) 매개 효과 검증에 의해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방성의 매개 효과는 1단계와 2단계는 검증이 되었으며, 3단계에서 개방성이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eta=.145$, $p<.05$), 진로준비행동도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332$, $p<.001$). 이는

Baron과 Kenny(1986) 매개 효과 검증에 의해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화성의 매개 효과는 첫째와 1단계와 2단계는 검증이 되었으며, 3단계에서 친화성이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eta=.116$, $p<.05$), 진로준비행동도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339$, $p<.001$). 이는 Baron과 Kenny(1986) 매개 효과 검증에 의해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실성의 매개 효과는 첫째와 1단계와 2단계는 검증이 되었으며, 3단계에서 성실성이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eta=.212$, $p<.001$), 진로준비행동도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320$, $p<.001$). 이는 Baron과 Kenny(1986) 검증에 의해 부분 매개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병리 전공 대학생의 성격 5 요인에 기초한 잠재적 성격 특성을 확인하고, 성격 특성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확인된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병리학과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배 이상 많은 비율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임상병리사의 남녀대비는 1975년 0.38로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하게 많았으나, 1985년 여성이 많아지더니 현재는 두 배 이상으로 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18]. 이 연구결과와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격 5 요인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친화성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성격5요인에서 신경증을 제외한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이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신경증은 학과만족도에서 유의미하였지만, 부적 상관이 있었고,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결정효능감, 성격 5 요인의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원만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13]. 이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성격5요인에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 특성을 향상하는 방법을 개입을 해 보는 것이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학과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임상병리학과 대학생의 성격 5 요인과 학과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외향성은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창의력이 풍부한 학생은 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취업을 위한 미래계획을 잘 준비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19]. 의 연구결과와 외향성은 자신 있고, 적극적이며, 낙관적인 성향으로, 이러한 성격 특성을 가진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이 취업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20]. 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성은 회귀분석에서도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매개 효과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성이 높을수록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로 탐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이러한 부정적 기대가 선택불안을 낳으면서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1][20].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병리사에 대한 전망과 수급정책 방향과 재학생의 학과만족도 및 취업에 관한 의식에도 대한 조사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성격 특성과 학과만족도와 이에 대한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관해 본 연구는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성격 5 요인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진로상담에서 학과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과에서 교수가 학생과 상담할 때 개인의 성격 특징과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하여 각각의 성격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는 맞춤형 진로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의 성격요인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격요인 중 외향성은 전공선택 후,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진로준비행동에 완전매개하여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임상병리 학과 학생들의 탈락을 예방하고 전공과 부합하는 진로에 매진할 수 있는 외향성과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학생활의 학과적응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측정방법은 자기 보고식 질문지였으므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임상병리 대학생의 성격 5 요인에 기초한 성격 특성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연구대상을 대구지역 한 개 대학으로 한정 지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각각 지역적으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는 표본선정에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E. L. Talbert,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90.
- [2] G. S. Lee, S. J. Do, H. A. Song, "Medi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reshmen",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3, pp.53-73, March.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03.23.3.53>
- [3] H. Y. Jeon, "A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2, pp.213-221, Dec.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12.213>
- [4] J. H. Lee, *A Study on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Korea, pp.1-2, 2009.
- [5] E. M. Kim, E. Y. Yu, "The Effects of th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on career Stress of Health University College Students", *Korea Society of Health and Welfare*, Vol.20, No.3, pp.81-99, Sep. 2018. DOI: <http://dx.doi.org/10.23948/kshw.2018.09.20.3.81>
- [6] E. J. Han,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on job search behavior and employment-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31, No.7, pp.121-134, July. 2017. DOI: <http://dx.doi.org/10.21298/IJTHR.2017.07.31.7.121>
- [7] M. R. Lee, H. S. Jeon,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861-8869, Dec. 2015.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861>

- [8] E. H. Lee, *The Effects of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on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for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Ph.D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pp.92-94, 2019.
- [9] J. M. Kim, J. C. Kim, "The Effects of Colleg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ducation Culture Research*, Vol.25, No.5, pp.273-288, Nov. 2019.
- [10] S. R. Park,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Resilience,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p.15-17, 2018.
- [11]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3-6, 1997.
- [12] G. Y. Hwang, Y. K. cho, "Investigation of the Clinical Pathology Department Student Satisfaction and Their Recognition of Employment in Gwangju-Jeonnang Provi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Vol.42, No.1, pp.55-61, Apr. 2010.
DOI: http://doi.org/10.21298/IJTHR.2017.07.31.7.12_1
- [13] M. R. Jeon, B. W. Kim,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7, No.2, pp.445-461, May, 2015.
- [14] H. N.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Hee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23, 2014.
- [15] K. E. Lee, *The effect of the Motivations for Selecting Major of the College Students Major in Hotel Management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s and the Job Preparation Action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Tourism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pp.27, 2017.
- [16] S.Y. Park,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Korea, pp.29, 2015.
- [17] G. S. Hur,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89, 2017.
- [18] S. G. Jeong, "The Importance and The Role of Medical Technologist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runal of*

Allied Health Research, Vol.5, No.1, pp.1-14, 1996.

- [19] Y. J. Kong,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s: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 majored in tourism and in Seoul and the capital area",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Vol.30, No.1, pp.41-56, Jan. 2018.
- [20] C. Brown, A. Hirschi, "Personality career development, and occupational attain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1-26). Hoboken, NJ: Wiley, 2013.
- [21] G. H. Lee, D. R. Lee, S. S.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on Career Behavior", *Business Management information institute*, Vol.31, No.4, pp.397-432, Dec. 2012
DOI : <http://dx.doi.org/10.29214/damis.2012.31.4.017>

이 규 리(Gyu-Ree Yi)

[정회원]



- 2019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7년 4월 ~ 2018년 8월 : 김천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 2019년 9월 ~ 현재 :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2017년 5월 ~ 현재 :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선임 연구위원

<관심분야>

사회심리, 정신건강, 사회복지, 인간행동

박 종 석(Jong-Seok Park)

[정회원]



- 2003년 8월 : 경북대학교 생명공학 (석사)
- 2008년 2월 : 경북대학교 생명공학 (박사수료)
- 2004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부교수
- 2016년 4월 ~ 현재 :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전문위원

<관심분야>

혈액학, 수혈학, 보건의료정책, 공중보건